

[보도자료] 쿠팡, 올해 마지막 패션위크 연다 인기브랜드 추가할 인까지

2023. 12. 8.



- '12월 패션위크' 오는 10일까지 진행 최대 할인을 80%
- 180개 이상 브랜드 2만여개 겨울 패션 아이템 총출동

2023. 12. 08. 서울 - 쿠팡이 매서운 겨울 바람에 대비하기 위한 패션 아이템을 최대 80% 세일하는 '12월 패션위크' 기획전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.

패션위크는 쿠팡이 매달 시즌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 진행하는 할인전으로, 최신 패션 트렌드가 반영된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. 기획전 페이지는 쿠팡 앱 내에서 '패션위크'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.

이번 패션위크에는 180여개 브랜드의 2만여개 상품이 참여한다. 겨울 아우터, 방한화, 기모바지, 겨울 액세서리(장갑·목도리·털모자 등), 니트웨어, 맨투맨, 수면잠옷, 내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.

대표 상품으로는 △블랙야크 기모 맨투맨(5만원대) △지오지아 숏 푸퍼(5만원대) △슈펜 털슬리퍼(1만8천원대) △트라이 방한 내복(2만원대) △마인드 브릿지 솅다운 점퍼(13만원대) △제이에스티나 목걸이(4만원대) 등이 있다.

12월 패션위크 한정으로 일부 브랜드에 추가할인을 적용하는 '브랜드세일'도 진행한다. 로라로라 베네통키즈, 앨빈클로, 주디앤, 엘르 주얼리, 엘쏘 등이 참여하며 브랜드에 따라 최대 15%에서 20%까지 추가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.

쿠팡 관계자는 "올해 마지막 패션위크이자, 2만여개의 겨울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"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